



농협 무주군지부 등 성금 지정 기탁

농협 무주군지부·무주농협·구천동농협이 5일 무주군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서비스에 필요한 차량 구입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농협중앙회 권오정 무주군지부장·무주농협 과동열 조합장·구천동농협 김성곤 조합장은 '농협은 무주군 자원봉사센터의 이동식 빨래방 차량 지원을 통해 지역민과 농협을 통한 지역사회에 대한 기쁨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농협의 신조인 같이 가치를 실현하게 되어 참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늘 고민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황인홍 군수는 '농협의 아름다운 기부는 이동식 빨래방 차량 지원으로 이어져 무주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의용소방대, 가족한마당 행사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지난 4일 남원시 이백면 남원문화체육센터에서 소통과 화합을 위한 2023년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경연 및 가족한마당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간 화재현장 및 재난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노고에 대한 격려와 위로를 위한 자리로 소방기술경연분야(방화복 착용 텔레비 등)과 노래자랑 및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한 남원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 내빈이 참석, 남원시의 인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선 모범의용소방대원 27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김제시지부·금만, 영농폐기물 수거캠페인

농협 김제시지부(지부장 임인)와 금만농협(조합장 최승운)은 지난 4일 농가주부모임(회장 김영자) 회원들과 함께 영농폐기물(폐비닐, 영농폐자재) 수거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김제시 청하면 일대의 영농현장을 방문해 방치된 폐비닐 수거를 통한 산불예방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최승운 조합장은 "우리농촌의 환경정화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고맙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시, 자활기업대표 간담회

남원시는 5일, 남원지역자활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3년 자활기업 성장 발전을 위해 자활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은영 시 주민복지과장, 남원지역자활센터장, 보은건설(집수리)·크린워시서비스(정부양곡배송)·월성건축(집수리)·자연애대체(음식업) 등 4개 자활기업 대표가 참석, 그동안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과 자활기업 활성화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자활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성과 자활 참여 여자 빌굴을 통한 인력 활용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우리'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고 개교 100주년 기념 특강

강임준 군산시장이 5일 모교인 군산고등학교를 방문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동기부여 강연을 펼쳤다.

이번 강연은 군산고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맞아 시청 각설에서 1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초청 강사로 강연에 오른 강임준 시장(45회 졸업)은 군산고 출신으로 군산의 역사와 함께온 군산고 100년의 역사를 설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걸출한 인물들을 소개하며 학생들에게 '군산고인'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줬다.

이어서 청년들이 취업과 성공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을 나눴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의 수도권 블랙홀 현실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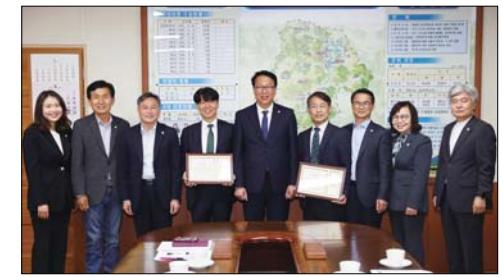
이를 위해 "이차전지, 첨단 소재 산업이 군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핵심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며 "새민글을 중심으로 군산에서 추진하는 미래 산업을 통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더라도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

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강연에 참석한 청년들에게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실력보다는 '성실한 태도'라는 점을 당부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강 시장은 "결과와 출신은 커녕 연애나 끔, 희망과 차별화할 수밖에 없는 요즘 청년들을 '포 세대'라고 부른다고 풀었다"며 "우리 지역에서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포기 없는(No-포) 청년을 위한 군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기자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 개최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지난 달 31일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신규 입법·법률고문의 위촉식을 개최했다.

진안군의회는 입법·법률고문 운영으로 강점인 변호사(현 법부법인 온고와 변호사) 및 최영종 노무사(현 노무법인 미루 대표노무사)를 신규 위촉하였으며, 이들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이번 신규 입법·법률고문은 고문 위촉을 통하여 진안군의회는 그동안 진안군 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민원, 사업자해 민원, 부당노동 민원 및 법률과 관련된 민원 등 군민의 법률 및 노동 민원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여 법적분쟁 및 노동관련 민원 상담 등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기대된다.

김민규 의장은 "행정여건의 다양화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노사 및 법률문제로 고통 받는 군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발대식 가져

진안군은 5일 2023년도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는 2008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해 올해로 16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개선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진안군민자치센터에서 개최된 발대식에서는 전춘성 군수와 김민규 군정을 비롯한 군의원, 민간단체인 용담호수질개선주체협의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결의문 낭독 시간을 가졌다.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는 오는 9월까지 쓰레기 투기·불법낚시·어로행위,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유입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한 감시 및 계도, 하천정화, 빙치쓰레기 수거 등의 활동을 펼친다.

전춘성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선발과정을 통해 채용된 지킴이들을 축하한다"며 "锑 조성 이후 상수원보호



구역 지정대신 자율관리 체제하에 매년 수질개선이 이루어져 자율관리 모범사례로 정착되고 있다며 지킴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노인복지관, 맞춤돌봄서비스 사회참여 자조모임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홍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5개 읍·면(무주읍, 무풍면, 설천면, 부남면 및 적상면)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5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무주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서는 독거노인들의 심리적 고립감 해소와 사회적 관계망 확장을 위해 사회참여 자조모임을 실시하였다. 정서적 치지체계 구축을 위한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대상자의 육욕에 맞춰 피부미용, 토탈공예 및 건강운동 등으로 10팀을 꾸려 진행하도록 했다.

피부미용으로 노년기 외모를 기꾸면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토탈공예를 통해 스스로 애세리를 만드는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며, 건강운동으로 소근육과 대근육을 발달시켜 신체적·정서적 힘을 강화하도록 지원하였다. 생활지원사 11명이 시동장을 의 9곳(총 10곳)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독거노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성취감을 높여주었다.

대상자 민모씨는 시골마을에는 열악한 교통편으로 문화프로그램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생활지원사와 함께하는 자조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요가·자세와 균형운동 방법을 배우니 평소보다 활동량이 늘어 생활에 활력이 증가하고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황배연 김제시의회 부의장, 2023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 수상

도 신방이 두타워 9대 김제시의회의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선배 동료의원들과 적황 부의장은 그간 △김제시장 공약이행 기본조례안, △김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군부대가 철수 이후에도 현재까지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뮤여있어 시민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황산' 되찾기 노력촉구, △모악산 관광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가 추진중인 모악산 도립공원의 공원계획 변경관련 선제적 대응요구 등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방향 제시를 목표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황배연 부의장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감사할 따름"이라며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의회를 선도하는 저력을 있는 시의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덕진소방서,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연중 운영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주택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더블(Double)보상제'를 연중 운영중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란 주택화재 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대피를 한 경우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주택화재의 경우 대형화재로 번지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워 화재 발생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고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전주덕진소방서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화재 초기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과 초기진화에 유용한 소화기 비치가 화재 안전을 위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이경아 기자

전주비전대 간호학부·전북대병원,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는 4일 전북대병원 간호부와 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협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실습생들은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준수하고 환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는 4일 전북대병원 간호부와 실습교육을 통해 실습생들이 다양한 실습 기회를 제공받아 간호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간호인재 양성을 위한 실습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올해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를 졸업한 9명의 학생들이 전북대병원에 취업했다.

/정은성 기자



덕진경찰, 자율방법연 임원진 초청 간담회 개최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김태형)는 5일 덕진구자율방법연합회 임원진을 초청 '자율방법대법' 시행 전 자율방법대에 공동체 친안협력강화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협조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는 '자율방법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은 그동안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 중인 자율방법대에 대해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자율방법대원의 자금침식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행자안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전연후 덕진경찰서장은 "법 시행 이후에도 모든 대원들이 하나가 되어 경찰과 함께 친안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지역체와 경찰에서는 자율방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요청했다.

김태형 덕진경찰서장은 "법 시행에 맞춰 지역체와 경찰에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율방법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출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민생자안 확보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경아 기자